



동(冬)장군의 귀환... 잎사귀에 내려 앉은 겨울 5일 '입춘(立春)'이 지난 뒤 찾아온 추위로 식물 잎사귀에 신기한 모양의 서리가 맺혀있다.

강희만기자

‘신종 코로나’ 주춤?... “7일까지 지켜봐야”

집중관찰 대상자 11명에서 더 이상 늘지 않아
12번 확진자 접촉한 남성도 5일 제주서 격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가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제주도는 ‘잠복기 최대 완료시점’을 오는 7일로 하루 더 연장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를 여행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유모(52·여·우한)씨와 밀접하게 접촉해 ‘집중관리 대상자’로 지정된 모민은 11명이다. 이는 지난 4일 카페 점원 2명이 추가로 지정된 이후 더 이상 밀접 접촉자가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현재 자가 격리 중인 집중관리 대상자 11명에 대한 모니터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1명 모두 유씨가 제주에 체류하던 1월 24일에 접촉했으며, 버스기사와 옷가게 점원, 편의점 점원, 약사, 카페 점원 2명, 호텔 직원 5명 등이다. 이 가운데 호텔 직원 A(20대)씨는 자가 격리가 이뤄지던 지난 2일 발열과 설사 증세를 호소해 검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 밖에도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2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남성이 지난 2일부터 제주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12번째 확진자(중국인·48세·일본 확진자와 접촉·1월 20일 발병)와 함께 1월 23일 낮 12시30분 강릉발 KTX를 탑승, 오후 2시27분 서울역에 도착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일 업무를 위해 제주에 입도했다.

이러한 사실을 5일 통보 받은 제주도는 A씨를 격리조치한 상태다. A씨는 최대잠복기인 14일이 경과하는 오는 7일 자정 이후로 격리가 해제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호흡기 증상 및 고열 등 특이 증상은 발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집중관리 대상자 11명의 잠복기는 오는 6일이지만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키기 위해 하루 더 연장한 7일까지 관리를 하기로 했다”며 “자가 격리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와 논의를 통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방역도 강화하고 있다. 노선버스 881대에 대한 내부 방역소독 횟수를 주 1회로 늘렸고, 지난 3일부터는 제주시·서귀포시버스터미널을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보수통합’ 변수로... 4·15총선 판도 술렁

중도·보수 ‘통합신당’ 출범 가시화 속 정가 촉각
제주지역서도 범중도보수통합 합류 선언 이어져
진보 vs 보수결집 세대결... 공천 혼선 등 우려도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두달 남짓 남은 상황에 범보수·중도를 아우르는 야권 통합이 변수로 부상하면서 제주 선거 판도 다시 술렁이게 됐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의 가장 ‘통합신당’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범중도보수통합 합류 선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 결집이 현실화할 경우 진보 진영과의 본격적인 세 대결 전개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야권 통합 변수가 선거판도에 미칠 영향을 두고 여야간 섀벗 마련이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은 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이 불가능한 바른미래당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제주도의회 강충룡 부의장을 포함해 주요 당

직자 5명 등도 동반 탈당 뜻을 밝히면서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사실상 와해 수순을 밟게 됐다.

장 위원장 직무대행은 “바른미래당은 그 어떠한 혁신도 불가능해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명분을 상실했다”면서 “합리적 중도와 개혁적 보수가 힘을 합쳐 한국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자고 했던 창당 정신을 실현할 수 없게 됐다”고 탈당 배경을 밝혔다. 이어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범중도보수통합에 합류하고, 통합신당(가칭)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혁신통합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중도

보수세력의 통합과 신당 창당 움직임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통합신당’에 합류한 바 있다.

따라서 도내 중도·보수세력의 이합집산과 진보진영의 결집 등으로 선거지형이 꿈틀거릴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수통합’에 따른 공천 과정에서 당내 혼선과 잠음 발생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제주시갑 선거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장 위원장 직무대행이 통합신당 출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통합신당 후보로 나설 뜻을 밝히면서 기존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들과 당내 공천 경쟁이 예상되고 있는 이유에서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제주 감귤 신품종 2022년 농가에 보급

만감류 ‘가을향’ ‘달코미’
3년생 화분묘 8000그루 보급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신품종 만감류인 ‘가을향’과 ‘달코미’ 3년생 화분묘 각 8000그루를 오는 2022년까지 농가에 보급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농업기술원은 지난 1996년부터 2017년까지 ‘감귤 돌연변이 찾기 사업’을 통해 상도조생, 씨너트, 인자조생 등 3품종을 개발했다. 또한 교잡육종 시작 8년 만인 2018년에는 11~12월 출하용 만감류인 가을향에 이어 지난해에는 달코미, 올해는 설

향 등 총 6개 품종을 개발 완료해 품종보호출원을 완료했다.

가을향은 11월에 수확하는 만감류로 당도가 13브릭스 이상이고, 껍질 벗기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달코미는 12월에 수확하는 만감류로 당도가 14브릭스 이상으로 과즙이 많고, 식감도 좋아 황금향을 대체할 품종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나온 설향은 황금향에 레드향의 꽃가루를 교배해 육성한 품종으로 15브릭스 이상의 높은 당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은 2022년부터 가을향과 달코미 2품종을 대상으로 3년생 화분묘 생산 시범사업을 실시해 농가에 보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생산한 묘목 8000그루를 올해 화분에 이식해 큰 묘를 생산하고, 설향에 대해서는 8000그루의 화분묘를 생산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귤 소비확대와 출하시기 분산을 위해 다양한 속기와 기능성 감귤 품종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알림

한라일보에서 당신의 꿈과 희망을 키우세요

유료 판매부수 제주도내 1위, 신뢰도 1위 신문
환경 중심, 사람 중심, 칭찬하는 신문
뉴미디어 기업으로 제도약하고 있는 한라일보가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제주의 가치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꿈,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젊은이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모집분야
▶ 수습/경력기자 0명
※ 경력직은 동일직종 2년 이상

제출서류 : 1. 한라일보 소정양식의 인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2. 최종학력증명서
3. 자격·면허 사본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심층면접

서류접수 : ty064@hallailbo.co.kr (이메일 접수만 받습니다)
접수마감 : 2020년 2월 13일(목) 18:00까지
문의 : 한라일보 경영기획실 064)750-2532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합격은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연동365일의원

진료 과목 **내과 / 소아청소년과**

2020년 보건복지부 지정
2015년부터 6년연속 지정

달빛 어린이병원

주중 평일 아침 9시 ~ 밤 11시까지
토·일·공휴일 밤 12시까지 진료

☎ **727-3651**
연중무휴 / 야간진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151005-중-77573

도민여러분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성심껏 진료하겠습니다.

연동365일의원